

10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여호수아 ·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여호수아 ·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 도 제 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낚시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새로운 도전 믿음의 승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전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합시다.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시다.

2007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간 첫 지점은 가나안의 중부지역이었고, 이것은 이 지역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도시국가 체제로 분열되어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을 분산하고, 가나안 전국의 주요 전략지를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 공격에 관한 하나님의 전략(1~5절), 여리고 함락 과정(6~21절),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 및 여리고성 재건 금지명령(22~27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순종하여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승리의 능력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과 사랑으로 진행되며,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함락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악된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라합을 살려주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체결된 새 언약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수 6:20)

기도 제목 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고 약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성 공격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아간의 탐욕스런 불순종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자신들만의 힘으로 정복을 시도하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배반하고 실패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어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자 아간을 처벌한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호 2:15), 이 예언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아골' (괴로움)과 죄로 인한 '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아간의 '아골'은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간과 같이 죄를 지으며, 죄를 숨기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진 아간의 행위를 좇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수 7:20)

기도 제목 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악을 단호하게 척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전술 전략을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공격 전술에 관한 지시(1~2절), 아이성 공격과 이스라엘의 승리(3~29절), 그리고 에발 산에 한 단을 세워 모세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에발 산과 그리스 심 산에 나누어 서서 각각 율법 준수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30~3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비신앙적 행동 때문에 실패로 끝났던 아이성 공격이 범죄자의 처형과 백성의 회개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로 해결될 때에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저주와 죽음만을 가져옵니다.(사 59:1~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영적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요일 1:9)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온 세상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수 8:26)

기도 제목 ① 마음과 행실로 치은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소서.
② 예배 때마다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중부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가나안 남부지역 정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화친하는 언약을 맺고(1~15절), 언약에 따라 기브온족속을 보호해 준 일(16~2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 소식을 접한 가나안 남부지역 족속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에 함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것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족속과 나머지 다른 족속들이 취한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기브온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족속의 행동은 속임수를 통한 비겁한 항복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브온족속과의 협상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브온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행할 바를 배워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여쭙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부인을 이루십시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수 9:3)

기도 제목 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가나안 남부지역도 정복됩니다. 가나안 남부지역의 아모리족속 동맹군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기브온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언약을 맺게 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보복 차원에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1~5절) 위기를 맞게 된 기브온족속은 이스라엘에 원군을 요청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부지역 정복전쟁에 돌입하게 되고(6~8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대승리를 거둡니다.(9~15절) 아모리 다섯 왕을 처형한 사건(16~27절)과 기타 남부지역들을 정복한 사건(28~39절), 정복된 가나안 남부지역의 지정 소개(40~42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가셨고, 정복전쟁의 순간마다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신 절대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브온 전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써 기브온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수 10:42)

기도 제목 ①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변치 않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위임묵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북부지역 정복과 정복전쟁 전체를 요약해 줍니다. 전반부 하솔왕 야빈 중심의 북부 동맹군의 결성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1~5절), 이스라엘의 북부 동맹군 대파(6~9절), 가나안 북부지역 점령(10~15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는 가나안 주요거점의 완전 장악에 대한 재확인(16~20절)과 아낙 자손을 진멸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 및 전쟁의 종결 내용(21~23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요거점들이 모두 이스라엘 손에 들어옴으로써 가나안 정복은 일단락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며(창 15:18 ; 출 3:15~17), 장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약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자손의 거대함에 기가 꺾여(민 13:22~23)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회개의 기회를 주사 친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45년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인족속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22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고단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좃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의 생애를 십자가의 거룩한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수 11:22)

기도 제목 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CMTC훈련에 참여하여 선교를 준비하며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주요 거점지역의 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에 대한 기록과(1~6절)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서른 셋 왕들에 대한 기록(7~24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에서의 거룩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죄악을 행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족속의 왕들이 믿었던 많은 우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가나안족속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족속들이 차지했던 땅을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줍니다. 나열되어 있는 피정복자의 명단과 그들이 다스리던 곳에 대한 기록은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왕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헛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수 12:8)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복되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될 땅을 또 다시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케 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순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약속과 맹세는 거짓되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쾌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수 13:7)

기도 제목 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뽑아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별로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땅 분배와 관련하여 불평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2절) 채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은 땅 분배 문제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두 지파가 공동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나 보상을 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충성해야 합니다.

6~15절까지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약속 받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고 아름다운 정복된 평야 지대를 요구하지 않고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미정복 된 땅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수 14:15)

기도 제목 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르우벤지파였지만,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지파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인정받았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유다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가데스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과, 동쪽으로는 사해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압느엘을 연결하는 지역과,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습니다. 유다지파는 남방지역에서 38개 성읍, 평지에서 40개 성읍, 광야지역에서 6개 성읍 등 모두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유다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이러한 땅 분배는 유다 왕국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예표하는 복을 누렸지만 가나안의 여부스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거민은 다윗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 울무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남겨둔 죄악된 가시와 울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입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와 더러움을 겸하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수 15:63)

기도 제목 ① 새 언약의 백성답게 경건히 살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위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에브라임지파는 요셉의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예언 성취입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지파가 므낫세지파보다 더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브라임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동서로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였습니다. 남쪽 경계는 유다지파의 뒤편이었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는 베냐민지파와 단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중앙 지대로서 에브라임지파는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지파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게셀 족속을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거민을 철저히 몰아내고 어떠한 형태의 화친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지파는 가장 큰 은총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지파의 이런 실수를 거울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치닫는 옛 사람을 벗어나고 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패한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드리 못 박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수 16: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남은 반지파만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 받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잇사갈, 스블론, 아셀지파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벤 스안, 므깃도, 돌을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므낫세지파도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두려움에 짓눌려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므낫세지파의 또 다른 잘못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굉장히 번성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배 받은 땅으로서는 너무 비좁아 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이 큰 민족이기에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15절)고 하며,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17절)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18절)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신앙의 길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며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믿음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대적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며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증거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이 항상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 하였더라”(수 17:13)

기도 제목 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하고 정결한 믿음을 주소서. ② 에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기업분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는 가나안 땅을 확보하는데 일곱 지파의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까지도 지체하여서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주저하며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만족하였으며 거기에 안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으면 안일하여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웁니다. 그들이 분배받지 못한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려 여호수아에게 나아오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토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지파의 기업 분배를 완수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3절) 하는 여호수아의 독려와 각 지파 대표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부르심에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수 18:3)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수요성경공부 · 교사 양성부 · 찬양대원 양성부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이스라엘의 기업분배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성취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의 가족 수에 따라 정확하게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날마다 죄에 빠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모든 일을 끝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업적이나 권세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담낫 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여 분깃으로 취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하는 신실한 순종과 겸손함을 보입니다.(49~50절) 이러한 여호수아의 희생적 사랑은 우리를 위해 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뿔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수 19:51)

기도 제목 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시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의 보수자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 보수법’(창 9:6 ; 출 21:22~24)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피의 복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설정하시고,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의 보수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피난처인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 골고루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위치해 있었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넓고 평탄하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4,6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수 20: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② 24시간 연속기도와 매주 월요일 새벽 장로기도회가 더욱 간절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도피성을 설정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함으로써 가나안 땅 분배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형제들의 기업 중에서 각 가계별로 제비뽑아 48성읍을 그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펼치며 공의를 실행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 신약시대의 레위지파입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45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의 삶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 21:45)

기도 제목 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가나안 땅 분배가 종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노고를 치하한 후,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동안 두 지파 반은 가족을 떠나 요단을 건너 5년여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단을 건너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단동편 두 지파 반 용사들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요단서편 강가에 이르러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하고 자신들도 요단서편의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전 협의없이 행해진 일이었으므로 요단서편 지파들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요단서편 지파들은 이를 우상숭배 행위로 오해하여 심히 분노하며 요단동편의 두 지파 반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방백들에 의해 오해가 풀리고 두 지파 반의 충정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간에 더 두터운 우의와 단결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 외의 다른 어떤 신도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신앙을 보여 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옛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수 22:3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품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면 서, 여호수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23,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 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음과 여호와께서 남아있는 가나안족속을 정복하실 것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어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킬 때에는 축복을 받을 것임 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임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 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남아있는 가나안족속을 물리쳐야 했습니 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11절)고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 거하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수 23: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모든 새 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 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세겜은 종교적인 의의가 매우 깊은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모든 우상을 묻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옛날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설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그 가정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결단을 요구합니다.(15절) 이러한 여호수아의 선언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며 역사의 주인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21절)라고 결의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22절) 다짐하듯, 이 결단은 지금 곧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 24:14)

기도 제목 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피택장으로 주제발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3절)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진보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참 모범이 되었습니다.(7절) '믿음의 역사'(행동하는 믿음)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들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은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역경을 극복한 그들의 헌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참된 믿음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며(6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9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자신들이 전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10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세워집니다.(5절) 이러한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살전 1:6)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남전도회 중심의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선했다고 고백합니다.(2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7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고(15절) 이방인에게 구원 얻게 함을 금하며(16절) 그들로부터 고난 받은 것을 역설합니다. 복음의 근본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2,8,9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13절)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질 그릇 같은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전도는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며”(8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19절) 라는 생명을 낳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감람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살전 2:19)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심정을 따라, 말 뿐이 아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교인들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교회가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으며,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7절)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굳게 서기를 바라는 전도자의 애타는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10절)

이런 심정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롬 8:34)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진흙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빚어 사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십니다.(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기도 제목 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종말로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하여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성적 순결(3~5절)과 형제 사랑(6,9,10절), 일하기를 힘쓰는 생활(11~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케 하심(3,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룩하시다”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케 하심이라는 말씀 앞에 가슴 벅찬 진정한 감격이 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며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13절)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16절)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17절) 거룩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 남은 자 모두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있을 그 날을 고대하며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천국을 사모함이 도피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천국의 비밀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찐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4)

기도 제목 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며(1~2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6절)고 합니다. “자지 말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9절)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10절) 11~22절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14절), “항상 선을 좇으라”(15절), “항상 기뻐하라”(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17절), “범사에 감사하라”(18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19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22절)고 하며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1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23절)

이 말씀은 명령체로 쓰여졌으며,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27절)고 사도의 권위로 명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 때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복음 증거하는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 5:10)

기도 제목 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임직되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난 받는 데살로니가교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칭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며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교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 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성도들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이히 여김' (10절)도 얻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치않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 (11절)로 여겨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기뻐하시고 인내하며 2008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살후 1:7)

기도 제목 ① 믿음으로 살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크게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세상의 끝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5)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여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폐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서 진리에 확실히 거하며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 구원을 얻게 하시며”(13절)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14절)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놓은 것은 죄 밖에 없습니다. 먼저 택하시어 부르신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붙들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기를(17절) 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살후 2:15)

기도 제목 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1절) 또한 자신의 일행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바울의 이 부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도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5절)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며 도리어 일거리만 만듭니다.(7~11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살후 3:1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교회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교훈을 주는 서신입니다. 에베소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단에 대한 경계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지닌 거짓 교사들과 “다른 교훈”(3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4절) 같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불필요한 변론을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3~7절)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8~11절) 자신이 전에는 궤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13절)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 바울은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가르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18~19절) 이단에 대해 경계하라”(18절)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15~16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바울을 만나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 가시고 일일이 열거하면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체험으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딤편 1:5)

기도 제목 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한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에베소교회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기도와 남녀 성도간의 질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교회가 국가와 통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2절), 저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선교의 의미입니다.(3~7절) 또한 교회 내의 여성도의 위치와 역할과 질서에 대해 언급하며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고 합니다.(11~12절) 이 권면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13절) 선악과 범죄에 있어서의 책임의 순서(14절)에 근거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5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5절)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소유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빌 2:7)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기에(사 53:4)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은총이기에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전 2:1)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각 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오직 은혜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교회의 성도간의 일치와 교회질서로 교회조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 (1~7절)과 ‘집사’ (8~13절)의 자격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업무를 맡아 보면서 감독의 일을 도왔습니다.(행 6장) 이러한 감독과 집사는 교회질서 확립과 교회 사업 전반을 위한 교회조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이 대부분 신앙인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신자로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 곧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갈 6:14)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높이고자 힘써 충성할 뿐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딤후전 3: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말세에 나타날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을 예언하면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1절)이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2절)이라고 경계합니다.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무조건 죄로 여겨 혼인을 금하는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구약 율법 중 짐승의 육식을 금하는(레 11장) 율법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교훈임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이단의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과(1~5절)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6절)고 권면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전력한 이유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합니다.(10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15절) 믿음의 진보는 교회 내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허탄한 신화 같은 우리의 과거의 공로와 자랑을 모두 다 내어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7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딤편 4:7)

기도 제목 ①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② 봉사 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0월 구역교재 초점

새로운 도전

믿음의 승리

새로운 도전 믿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라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기에 거듭난 생명으로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시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005	눅 17:29~33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
1012	수 14:6~14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실천하자
1019	고전 3:1~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1026	수 1:1~9	새로운 도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마지막 날 이 여인을 기억하라

| 초 점 |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

| 찬 송 |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본 문 | 누가복음 17:29~33

㉨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
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
러하리라 ㉪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
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 룻의 처를
생각하라 ㉬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 19:24~25 /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과 □을 비 같이 □□과 □□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하셨더라

멸망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창 19:17 / 그 사람들이 _____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_____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눅 17:31 / _____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_____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길을 고집한 것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눅 17:32 / □의 □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롯의 처를 예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롯의 처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영적인 은총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가 받았던 영적인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2:4

롯과 롯의 처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굳센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벧후 2:7 / _____ 인하여 _____
을 건지셨으니

오늘날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와 TV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진열된 기독교 서적들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특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요 1:12

엘리사선지자 밑에서 일했던 것이 게하시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데마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이것이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딤후 4:10)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이것 또한 그를 구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왕하 5:27 / 그러므로 나아만의 이 네게 들어 네 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이 발하여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날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불이 우리를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싫어요!”라고 고집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 바라보며 뚝의 처 같이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8:23 /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_____
멸하시려나йк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여섯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 두 천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 롯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롬 8:34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시니 그는 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자시니라

롬 8:26 / 이와 같이 도 우리 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이 말할 수 없는 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느니라

※ 중보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롯의 처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 19:26

롯의 처는 놀라운 영적 특권 가운데에서도 뒤를 돌아봄으로써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정원, 친구들, 재물, 보석, 귀중품들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진짜 보물들은 이 땅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녀 자신도, 그녀의 보물도 멸망당했습니다.

요일 2:15 / _____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_____

십자가로 路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 물질, 쾌락에 가치를 두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습관, 취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을 행하지 마십시오.

벧후 3:10 / 그러나 _____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_____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딤후 6:10 / _____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
하는 자들이 _____ 믿음에서 떠나 _____

※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조금 기동이 된 롯의 처를 보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대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심판하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영원의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2.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3.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초 점 |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실천하자

| 찬 송 |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본 문 | 여호수아 14:6~14

⑥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
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
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⑦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
고하였고 ... ⑧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
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⑨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음이라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보고를 보시고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십 오년의 긴 세월 동안 갈렙은 동일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지난 사십 오년의 세월은 갈렙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험난한 인생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갈렙은 팔십 오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딤후 47~8 / 내가 선한 □□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헤브론 땅은 열 명의 정탐꾼들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으로 하여금 이 거친 땅을 향해 강하게 도전하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이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수 14:6 /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_____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_____ 당신이 아시는 바라

민 14:24 / 오직 _____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갓던 땅으로 _____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더 나은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갈렙은 일평생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수 14:7

민 14:8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기억했습니다.

수 14:8 /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_____

나는 나의 하나님 _____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완전한 복종, 온전한 임무수행, 신실한 헌신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않았습니까?

계 2:4

※ 주님과 첫 사랑의 때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렙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수 14:10 /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나를 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시 23:6 / 나의 평생에 ☐하심과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
☐의 집에 ☐히 거하리로다

갈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갈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과제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대한 거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 14:12 /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_____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_____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_____ 내
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수 14:11 /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_____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_____

갈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순간까지 왔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크고 어려운 축복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인이라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 14:14

십자가로 路

갈렘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 14:13 / 너희가 _____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_____

히 11:6 / _____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_____ 믿어야 할찌니라

※ 자신에게 있어서 갈렘처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헤브론 산지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첫 사랑,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2.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들이 주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3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 초 점 |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 찬 송 |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 본 문 | 고린도전서 3:1~3

☞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요 3:3

고후 5:17

니고데모는 종교 학자였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종교생활, 대형 교회, 역량 있는 목회자가 결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벤전 1:18~19 /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 된 것은 ☐ 이나 ☐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 없고 ☐ 없는 어린 양 같은 ☐의 보배로운 ☐로 한 것이니라

※ 자신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적 어린이

인간의 성장과정 중에 어린이가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어린이가 있습니다.

고전 3:1 / 형제들아 내가 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갓난아기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듭남(회심)을 시작으로 성장(성화)과 성숙(영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롬 8:30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시고 하신 그들을 또한 롭게 하셨느니라

※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시기에 있는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예 -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녀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무관심하며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회에는 성장과 성숙이 멈춘 영적 어린이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히 5:12 / 때가 오래므로 _____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_____
_____ 젖이나 먹고 _____

히 5:14 / _____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_____

이기적인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빌 2:4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어서 받으려고만 할 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야단법석을 떨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린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빌 1:27 /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에 □□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면 점잖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뿌루퉁해집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신사 숙녀처럼 교양 있게 행동하다가도 집에 오면 마귀처럼 변합니다.

말뿐인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행동하기 보다는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 5:17 / □□의 소욕은 □□을 거스리고 □□의 소욕은 □□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하는 것보다 논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툼, 불평, 불만 뿐 아니라 시기, 분쟁, 분열을 일삼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따라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고전 3:3 / 너희가 아직도 _____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_____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시 115:9

영적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가족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또한 목사나 전도사,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路

현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는 교인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어린이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해야 합니다.

벤전 2:2 / 갓난아이들 같이 _____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_____

※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논쟁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적인 삶을 멈추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소서.
2.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3. 믿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새로운 도전

| 초점 |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자

| 찬송 |

찬송가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 본문 | 여호수아 1:1~9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모세와 아론, 미리 암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민 13:32 /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이 □□한 자들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은 신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하시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명예, 정치,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위대한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수 1:2 / _____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_____

이제 여호수아는 사십 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사십 년 전, 열 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절망에 싸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민 14:9

안타깝게도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우세했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민 14:10 / 온 에 그들을 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이
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수 1:3~4 /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까지 너희 이 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한 거주민이 있었습니다.

민 13:31 /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_____ 하고

민 13:33 /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_____ 우리는 _____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십 년이 지난 후, 가나안 거민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무기를 개발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 1:6~7 / 마음을 ☐하게 하라 ☐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하게 하고 극히 ☐히 하여 ...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 역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던 믿음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한 여호수아의 무기였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_____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_____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_____ 붙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라

우리는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또 육체와의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엡 6:12

싸움이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패배의 광야에서 헤
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의 땅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방법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엡 6:18 / 모든 □□와 □□로 채워 무시로 □□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
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이 주는 용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 11:28

요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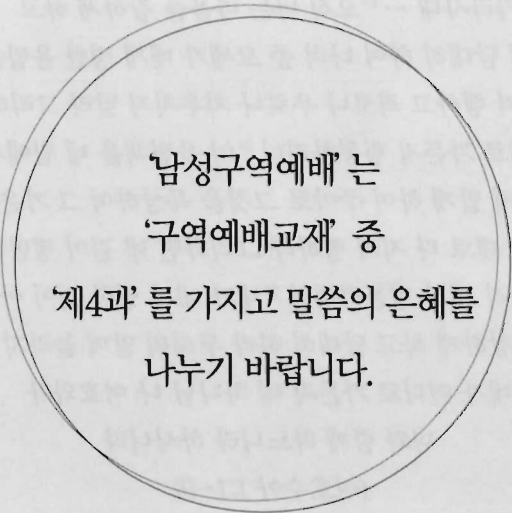
※ 세상과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대적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용기가 샘솟을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2.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

⁽¹⁾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⁷⁾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⁸⁾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⁹⁾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9)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은 신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하시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 자체도 수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인간적인 명예, 정치, 성공으로 인해 유례없는 쇠퇴를 맞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전염병과 유월절,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또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

눈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2~4절) 여호수아는 사십
 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을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보냈던 열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은 자신들이 본 것 때문에
 절망에 싸여 돌아왔습니다. 사십 일 간의 정탐 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민 14:7~8) 안타깝게도 열 명의 보
 고가 우세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민 14:10)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
 럼 보였지만 결국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
 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치러야 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
 안에는 이미 거주민이 있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말했습니
 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
 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
 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라”(민 13:31~33) 사십 년이 지난 후, 가나안 거민들은 숫자가 불
 어나고 힘이 더 강해진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감소했습니
 다. 지난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생존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6~9절)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스승은 이미 죽었고 그 역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한 그의 무기였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15~17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과 또 육체와의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에베소서 6:12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싸움이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패배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의 땅에 서 있습니까? 여

러분의 삶은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방법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믿음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하십시오.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5)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싸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용기가 샘솟습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발행인 | 김소현
 편집인 | 노관현
 부재용 | 김재현
 발행처 | 충청대학교 출판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북로 666-1 전화 552-8200) (비매품)

충현의 만나 2007년 10월호

- 완송과 성경 본문
-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 완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묵독
- 예배 사회자
-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예배 소요시간
- 약 15분 내외가 적함

완송 이 다
 성경 묵독 사회자
 메시아 찬송 이 다
 기도 이 다

예배 순서